

# 문제 잘 못 내는 교사

지난해 '복수 정답·출제 오류' 광주 지역 고교 재시험 239건 과학·사회·수학 빈번 '증가세' 일선 교사 출제 능력 미진 지적 학내 공동출제·공동검토 권장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잘못 출제된 시험문제 때문에 지난해 무려 239건의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시험 과목의 절반 가량은 정답이 없는 부실 출제였던 것으로 드러나 평가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시험 피로도를 가중하고 대학에서 광주 고교 내 신성적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의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68곳의 지필평가 재시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39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재시험은 학교 내에 구성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데, 지

난해 재시험 사유로는 '정답 없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제 오류 75건·복수 정답 14건·문항 전제 3건·시험 범위 오류 2건 기타 36건 등이 다.

재시험이 잦은 교과목은 과학 68건·사회 66건·수학 48건으로 3과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어 27건·영어 16건·기타 14건 등이다.

특히 광주지역 고교 재시험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 164건, 2023년 19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급증했다.

재시험 증가의 원인으로는 고교 학점제 도입 과정에 선택 과목의 폭이 넓어졌는데 일선 학교의 시험문제 출제 대응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로 선택 과목수가 많아진 과학·사회·수학에서 다른 과목보다 훨씬 잦은 재시험 현상이 드러났다.

내신과 성적평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학교마다 이의신청과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도 광주 시내 한 고교의 영어·과학시험에 대한 학부모 문제 제기가 국민권익위 조사 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경

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평가 내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시험문제 오류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청·교육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재시험 증가는 학교의 평가방식에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평가관리센터 운영으로 성취평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업무 담당자 연수로 일선 학교의 평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시험 감소를 위한 학내 공동출제와 공동검토를 권장하고 학교 요청시 평가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시험 현황을 지필평가 종료 후 연 4회 제출하도록 해 일선 학교의 학생 평가에 대한 책임감도 높일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당국도 학교와 교사를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문제 팔아먹는 교사

광주 2명 등 공·사립 250여명 사교육 업체와 시험문제 거래 6년간 212억9000만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여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광주지역 교사 2명도 사교육 업체 등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 8000만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000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000만원), 수학(57억1000만원), 사회(37억7000만원), 영어(31억 원), 국어(20억8000만원) 등의 순으로 컸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

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광주 사립고교 교사 A씨는 수능 출제 합숙소에서 만난 적이 있는 타 지역 교사 B씨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 학원 등에 총 26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작·판매해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학교 교사 B씨도 사교육 업체와 거래해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는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기밀해 탐정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문을 시달한 이후 교원의 문항 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동절기 헌혈 동참해주세요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원장 허정) 임직원들이 동절기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덴병원은 1년에 두번씩 28번째 헌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주말까지 출·퇴근길 강추위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온도 '뚝'

광주·전남에 찾아온 출·퇴근길 맹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한반도 북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영하권 추위가 이번주 내내 이어지겠다"고 18일 예보했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6~영하1도·낮 최고기온은 2~5도에 분포하겠으며, 20일 역시 아침 최저기온 영하6~영하1도·낮 최고기온은 2~6도에 머물겠다.

전남 해안 등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그밖의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또 17일 오전부터 건조특보가 내려진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돼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여수해경 '서경호 침몰' 선사 압수수색

여수해경이 서경호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를 압수수색했다.

여수해경은 18일 "수사 절차에 따라 부산시에 있는 서경호 선사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 서구에 있는 서경호 선사 사무실과 관련 대상자를 상대로 수색을 나서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물품을 압수했다.

해경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새벽 1시 40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14명의 승선원이 탑승한 부산선적 서경호(139t)가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함정과 해경 잠수부 등을 통해 수중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해 민간 잠수부 투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

## 윤 부부 딥페이크 영상 수사 광주경찰청으로 이송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사건을 광주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상영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전남 해당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영암 대불산단 배관 작업 60대 6m 아래로 추락 크게 다쳐

영암 대불산단 입주업체에서 지붕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18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한 정유업체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배관정비 업체 직원인 A씨는 해당 정유업체에서 지붕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